



보도	2026.3.4.(수) 10:00	배포	2026.3.3.(화)	
담당부서	중소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건필 (02-3145-6770)
	중소금융총괄팀	담당자	부국장	이장희 (02-3145-6772)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6.3.4.(수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저축은행 CEO 및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금년 저축은행업권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,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음

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6. 3. 4.(수) 10:00 ~ 11:00
- ☑ 장 소 : 저축은행중앙회 18층 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찬진 원장, 이진 중소금융부문 부원장보
중소금융감독국장, 중소금융검사1국장
(저 축 은 행) 저축은행중앙회장, 10개 주요 저축은행 CEO

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이 경험한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, 업계가 기울여 온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최근의 회복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
 - 이제는 서민·중소기업, 지역경제를 받치는 '튼튼한 동반자'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시점임을 강조

① 서민·경제로의 상생·포용금융 역할 강화

-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,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 안착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
-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저축은행이 함께 성장하는 ‘상생 모델’의 구축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

② 현장 중심의 ‘금융소비자보호’ 실천

- 저축은행 주 이용 고객인 서민,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·제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·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업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
- 아울러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,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하여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도 저축은행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

③ 책임있는 건전경영 및 내부통제 내실화

- 올해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계기로 삼아, 저축은행의 사업구조, 규모에 부합하는 ‘맞춤형 내부통제 체계’를 구축하여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,
-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을 통해 어떠한 대외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건전 경영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

3

참석자 발언 요지

- 저축은행 CEO들은 대표 지역·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,
 - 이에 걸맞은 책임 기반 업무수행과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지속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
 - 다만, 지역경제 둔화 및 건전성 관리 부담 확대 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영업·규제 환경 변화로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,
 - 저축은행이 고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
- 이찬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고,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밝히며,
 - 앞으로도 저축은행이 지역·서민의 금융현장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

(별첨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